

전주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은 철거중...예술촌으로 변신

전주시, 85억원 투입...프로젝트 올해 완료

성매매여성 250명→22명 감소...업소도 급감

전북 전주시청 인근 선미촌의 성매매집결지 이미지가 벗겨지고 있다. 곳곳에 전시관과 책방, 박물관 등이 들어섰고, 호객행위를 하던 길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는 '여행길'로 조성 중이다.

문을 닫는 성매매업소도 갈수록 늘어나면서 철거를 알리는 글과 매매를 원하는 전단지들을 쉽게 볼 수 없다.

전주시가 2017년부터 벌이고 있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선미촌을 성매매집결지가 아닌 예술촌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전주시의 계획이다.

◇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이 있습니다. 전면 개방방식으로 거기에 빌딩 몇 개 지어서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빌딩 다 줄 테니까 빨리 끝내자'고 하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기억과 흔적을 남길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

미촌을 예술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2017년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 태스크포스팀 특강에서 한 말이다. 선미촌을 성매매집결지가 아닌 예술촌으로 만드는 이른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구상이었다.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4억6500만원과 시비 60억3500만원 등 총 85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주민공동체 육성 △공공경관 정비 △소로 개설 △도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전주시는 2017년 6월 선미촌 성매매업소를 사들여 현장시정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시티가든 조성 △예술가 책방 '물결서사' 개소 △'노송니우스 박물관' 개관 △지역골목 조성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성평등전주'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대부분 성매매업소를 사들여 한 사업들이다.

현재 공사 중인 업사이클센터

건립은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달 물결서사 옆에서 착공한 문화예술공간 신축공사는 9월 완료가 목표다.

◇ 호객길 아닌 '여행길'

성매매 여성들이 호객행위를 하던 '권삼도로'라는 길도 함께 변신하고 있다. 전주고등학교에서 여성인권센터까지 약 650m 구간을 곡선형 도로로 만드는 공사가 한창이다.

전주시는 따로 인도가 없던 이 길에 곡선형 차도와 인도를 만들면서 이팝나무 등 가로수도 심고 있다.

전주시는 이 길에 '여행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선미촌이 예술촌으로 바뀌면 한옥마을 등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 여행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11월 완공 예정이다.

전주시는 기존 2개인 선미촌 방범용 CCTV도 7월까지 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개의 CCTV는 보강하기로 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이다.

◇ 성매매 여성 2002년 250명→2020년 22명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진행

되면서 성매매 영업도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에 따르면 2002년 선미촌 성매매업소와 성매매여성은 85개와 250여명에 달했다. 노송동예술촌 프로젝트 준비를 하며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가 발족할 당시인 2014년 말에는 49개, 88명이었다.

그러다 2018년 6월 24개, 47명으로, 올해 2월 현재 15개, 22명으로 줄어 들었다.

성매매업소 건물은 49동이지만 이 가운데 34동이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한 프로그램으로 성매매를 그만 두는 여성의 자활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13명에게 생계비와 직업훈련비, 주거지원비 등을 지원했다.

한때 성매매 여성들은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하기도 했다.

김승수 시장은 지난 1월 전주시청, 완산경찰서, 완산소방서, 전주세무서 관계자 등과 함께 선미촌을 찾았다.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올해

◇ 전주시 "올해 안에 끝낸다"

김승수 시장은 지난 1월 전주시청, 완산경찰서, 완산소방서, 전주세무서 관계자 등과 함께 선미촌을 찾았다.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올해



지난 19일 전북 전주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한 성매매업소 유리문에 '철거'를 알리는 글자가 적혀 있다.

마무리되는 만큼 성매매업소를 완전히 없애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였다.

검찰과 경찰은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고, 세무서는 성매매업소의 탈세 여부를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소방서는 불법건축 등 소방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권삼도로 '여행길' 공사가 한창인 현재 선미촌 성매매업소 곳곳에서는 '철거'를 알리는 페인트 글자와 '매매'를 원하는 전단지들을 볼

수 있다.

김 시장은 "선미촌은 공권력에 의한 강제가 아닌,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을 받았다"면서 "인권과 예술을 주제로 한 거점시설 유치 등 선미촌 2.0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가장 특색 있는 인권과 예술의 공간으로 선미촌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경남도, '제로페이 프로모션' 실시

소비자 10%할인가매+5%페이백 등 '최대 15%할인'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로페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비접촉 안심결제 수단인 제로페이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활용해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맹점 혜택'을 늘리는데 중점을 뒀다.

소비자는 경남사랑상품권 등 제로페이상품권 10% 할인구매와 결제금액의 5% 페이백 등으로 최대 15%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는 지난달 5일부터 경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여 판매하고 있다. 나머지 5% 혜택은 결제금액에 대한 페이백이다.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상품권이나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월 최대 5만원까지 돌려준다.

예를들면, 산청군에 사는 A씨가 17일 현금 9만원으로 산청사랑상품권 10만원을 구입해 집 앞 서점에서 상품권으로 아동서적을 구매하고 5% 페이백을 받으면, 10만원 어치 책을 15% 할인된 8만5000원에 구매한 셈이 된다.

다만 소비자가 법인인 기업제로페이와 코레일톡 승차권 구매는 페이백에서 제외된다.

5% 페이백'은 지난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5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는 만큼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도내 제로페이가맹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제로페이와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결제된 매출액의 2~5%를 지원받는다.

사업자등록번호 당 하나의 가맹점으로 보며, 가맹점별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비율은 제로페이 가맹기준에 따라 연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은 5%, 그 외 가맹점은 2%다.

가맹점은 제로페이상품권 결제로 연매출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를 면제 받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공제 받아 경영부담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범이&곰이' 캐릭터 상품화

도내 기업 사용료 무료



강원도가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강원도 캐릭터 '범이&곰이'의 상품화 작업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범이&곰이'는 최근 전국적으

로 이름을 끌었던 모았던 감자판매 이벤트나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캐릭터가 꾸준히 노출되면서 인기가 상승해 상품 판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는 캐릭터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하는 차원에서 상품화 사업을 추진해 60개상품 상표권 출원·등록을 진행 중이다.

협약에는 소상공인 포함 도내 기업에 대해서는 사용료(라이선스비) 무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상품화 사업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이라 기자



봄파도 마중가는 서퍼

지난 19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봄 파도를 타기 위해 걸어들어가고 있다.

충남, 코로나 위기 쌀 수출로 승부수... 농가소득 증대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충남도가 쌀 수출 확대라는 승부수를 던진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실제로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쌀 수출을 줄이거나 중단했으며 러시아도 곡물 수출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이외에 알제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미얀마, 북마케도니아도 일부 먹거리 및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거나 시행 예정이다.

도는 이와 반대로 세계 식량 수출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쌀 수출을 확대, 농가 소득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식량 위기 우려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급률 또한 높아 가수요에 대한 가격 폭등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그동안 충남의 쌀 수출실적을 보면 △2018년 호주, 홍콩, 네덜란드 등에 357톤, 74만 3000달러 △2019년 호주, 말레이시아, 이라크, UAE, 홍콩 등에 343톤, 89만 9000달러를 수출했다.

올해는 3월말 기준 호주와 네덜란드, 이라크, 두바이, 프랑스 등에 180톤, 41만 3000달러 수출을 이어

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의 수출 실적이다.

도는 쌀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의 기반이 되는 RPC 시설 현대화를 위한 고품질쌀 브랜드를 육성(2개소 79억원)하는 동시에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5개소 60억원)을 강화한다. 또한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7개소 27억원)을 실시하고 통합 및 노후 RPC(DSC) 시설 장비 지원(21개소, 47억원)도 추진키로 했다.

추옥도 농림축산국장은 "충남 쌀이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광명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에 보상금 지급

경기 광명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이들 이상 휴업한 점포에 '임시휴업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일부터 전화 신청을 받는다.

지난 1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을 하게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휴업한 일수 당 10만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점포는 시 지역경제과로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 여부를 확

인하면 된다.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 현장 파악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시는 확진자 방문 점포에 전문 업체 방역 소독을 지원한 바 있다.

전북, '초등학교 영어놀이터' 조성

전라북도교육청은 즐겁게 놀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초등학교 영어놀이터'를 조성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초등학교 영어놀이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교육부 지원 사업이다.

대상학교는 전주 동신초와 전주 자연초, 군산 미성초, 이리 고현초, 정읍 동신초, 태인초, 완주 봉서초, 임실 오수초 등 8개교다. 교육청은 학교당 250만원씩을 지원한다.

영어놀이터는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촉진하는 학습·놀이·쉼의 공간이자, 학교·지역사회에서 영어교육, 정보공유와 발표가 가능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놀이터를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구조 혁신을 통해 놀이와 학습, 휴식과 창의적 활동 등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 드라이브 스루 송어회세트 행사 열어

송어회세트 행사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구미시 송어양식조합이 19일 '드라이브 스루 송어회 세트 판매 행사'를 열었다.

지난 18일에 이어 이틀간 구미 낙동강체육공원 1주차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조합측은 송어회 180g과 니물, 초고추장, 고추냉이, 물수건 등을 냉장보관한 1세트 1만원에 판매했다.

이날 오전까지 1000여세트의 송어회 세트가 팔렸으며 600여명의 시민들이 송어회 세트를 구매했다.